

## 〈바울의 고별설교〉

###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

8/27(주일) 설교 내용

사도행전 20:17-24

1. 오늘 말씀 중 사도행전 20:24을 함께 큰소리로 읽어봅시다.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‘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’ 달려갈만한 <사명>이 우리에게 있습니까?

‘사명’이 반드시 선교지로 떠나고, 풀타임으로 ‘교회 사역’을 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. 자신에게 주신 환경, 그곳이 회사가 될 수도 있고, 학교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직업과 은사를 통해, 속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,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, 그것이 바로 <사명>이며, 우리가 오늘도 달음질하며 달려가야 할 목표(Goal)인 것입니다.

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,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알기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만류했습니다.(행 21:12)

하지만, 사도 바울은 ‘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다’(행 20:22)고 고백합니다.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,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상황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, ‘성령에 매여’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도 덧붙여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목원들의 상황과 현실을 목자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니, 그 상황에 맞게 나눔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몇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가장 와닿고 도전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? 혹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이나 결단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.

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,

- ① 하나님의 때가 있다. (카이로스 & 크로노스)
- ② 말과 행동을 스스로 삼가라. (단정한 품행과 맛있는 말과 행동)
- ③ 진정한 복은 나누고 베푸는 삶이다.

같은 말씀을 접해도 개인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.

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닿는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

목자들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, 목장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‘다짐과 결단’ 이라는 것입니다.

단순히 ‘OO가 좋았다’에서 그치지 말고, 이것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소그룹은 신앙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.

우리 목장도 그런 ‘신앙 발전소’ 가 될 수 있습니다.